

『お伽草子集』 「和泉式部」 에 관한 小考

남 이 숙*

(e-mail : ysnam@kunsan.ac.kr)

< 목 차 >

- | | |
|----------------------|----------------------|
| 1. 첫머리에 | 3. 和泉式부와 道命의 실상과 허구화 |
| 2. 『お伽草子集』 속의 「和泉式部」 | 3.1. 和泉式부는 유녀? |
| | 3.2. 和泉式부와 道命 |
| | 3.3. 모자상간과 출가 |
| | 4. 나오며 |

キーワード：お伽草子(Otogizoshi), 和泉式部(Izumishikibu), 道命(Domyo), 母子相姦(Incest), 出家(Seclusion from the world), 虚構化(Fictionalization)

1. 첫머리에

和泉式部(이즈미시키부)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헤이안 중기에 활동한 일본의 대표적 여류가인이다. 그의 가집 『和泉式部集·続集』에는 자유로운 발상과 신선한 기법과 시어를 사용한 정열적인 와카 약 1500여 수가 남아 있다.

『和泉式部日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유분방하고 정열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和泉式部는 당시 두 명의 황자와 스캔들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36歌仙으로 선정될 만큼 와카를 잘 읊는 가인이면서 여러 남성과 정열적인 연애를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和泉式部 이야기는 중세 설화문학에 많이 등장한다. 무로마치(室町)시대 때 부녀자에게 읽히기 위한 모노가타리를 집대성한 『お伽草子集(오토기조시슈)』에도 등장한다. 『お伽草子集』에 등장하는 和泉

* 군산대학교, 동아시아학부 일어일문전공 교수, 일본고전문학

式部는 역사 문헌 속의 和泉式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중세 설화나 모노가타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お伽草子集』의 和泉式부의 모습이 平安·中世 설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お伽草子の 和泉式部像 조형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헤이안의 실증 문헌과 작품, 그녀와 관련 있는 설화, 등장인물 관련 기록이나 작품을 분석하고 이야기가 유통되는 과정, 나아가 편찬 의도와 당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방식 등에도 주목해야 하는 바, 이 점에 유의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和泉式部 설화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山本節 「道命と和泉式部説話」¹⁾와 小島孝之 「説話を読み解く—宇治拾遺物語の戦略—」²⁾연구가 있다. 전자는 『宇治拾遺物語』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중세 설화 전반을 시야에 넣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중세 설화에 관해 폭넓게 언급하고 있으나 お伽草子の 관련성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お伽草子集』 속의 「和泉式部像」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테마는 작품집의 성격을 이해하고, 설화가 서민들 모노가타리 속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독창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2. 『お伽草子集』 속의 「和泉式部」

お伽草子は 14-17세기에 걸쳐 나타난 400여 편에 이르는 단편소설의 총칭이다. 명칭은 17세기 오사카(大阪)에서 출판된 『오토기분코(御伽文庫)』에서 유래한다. お伽草子は 중세의 모노가타리(物語)가 쇠퇴하자 그 뒤를 이어 나타난 것으로, 작자도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헤이안시대 모노가타리 문학의 작자나 독자가 궁정귀족이었던 것과 달리 お伽草子の 작자나 독자는 말단 귀족, 평민, 무사, 승려 등이다. 중세 이후 무사계급이나 평민층 서민의 사회적 성장과 함께 이들 수준에 맞는 무사·승려·서민·예능인을 주인공으로, 심지어는 동식물과 곤충을 의인화하여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친다.

『お伽草子集』에 수록된 「和泉式部」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³⁾ 이치조(一条)

1) 山本節(1980) 「道命と和泉式部説話」 『国語と国文学 57(3)』 明治書院、p.41-57.

2) 小島孝之(2014) 「説話を読み解く—宇治拾遺物語の戦略—」 『成城国文学論集(36)』 成城大学、pp.1-24.

천황 때 和泉式部라는 아름다운 유녀가 있었다. 열세 살 때 다치바나노 야스마사와 관계를 맺고 열네 살이 되던 해 봄에 남자아이를 낳지만 아이는 고쥬의 다리 아래 버려졌다. 아이는 장사꾼이 발견하여 길렀는데 나중에 히에잔에 들어가 수행을 거쳐 道命(道命) 아자리(阿闍梨)⁴⁾라고 불리는 스님이 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道命은 열여덟 살의 나이에 궁궐의 법화경 설법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잠깐 마주치게 된 서른 살 남짓의 궁녀 和泉式部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궐을 파는 상인으로 가장하여 和泉式部가 머물고 있는 궁궐의 거처를 찾아가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와카 20수로 읊어 구애의 뜻을 전한다. 와카를 듣고 감동한 和泉式部는 道命을 찾아가 하룻밤의 정을 나누게 된다. 그런데 그때 和泉式部는 예전에 아이를 버릴 때 품안에 넣어주었던 칼을 道命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道命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和泉式部는 道命가 자신이 버린 아이임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에 전율을 느낀다. 和泉式部는 출가를 결심하고 쇼사산에 들어가 쇼쿠조닌의 스님의 불제자가 되어 불교에 입문한다. 이상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和泉式部の 실상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정전과는 관계가 없는 묘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를 사실과 비교해 보자.

첫째, 和泉式部는 유녀로 열세 살에 다치바나 야스마사와 관계를 맺고 열네 살이 되던 봄에 남자아이를 낳지만 아이는 고쥬의 다리 아래 버려졌다⁵⁾는 대목에 관해 보자. 和泉式部는 『中古歌仙三十六人伝』에 의하면 아버지는 에치젠의 지방관 大江雅致이고 어머니는 옛츄 지방관인 守平保衡의 딸이라고 되어 있다. 부모가 모두 지방관의 위치에 있는 어엿한 중류집안의 자제였음을 알 수 있다.⁶⁾

다음은 다치바나노 야스마사(橋保昌)란 남자와의 관계이다. 문헌을 확인해보면 그녀의 첫 남편은 다치바나노 미치사다(橋道貞)였으나 이혼하고 인생 후반기에 헤이안시대 무장인 후지와라노 야스마사(藤原保昌)와 결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다치바나노 야스마사란 인물은 첫 남편의 성과 마지막 남편

3) 이하 본문 大島建彦 校注·訳(1976) 『お伽草子集』 小学館, pp.386~393의 내용을 정리.

4) 불법과 계율을 지키는 덕이 높은 스님

5) 5)의 책 p.383. 이하 원문 ‘花の都にて一条の院の御時、和泉式部と申してやさしき遊女あり、内裏に橋保昌とて男あり.’

6) 山中裕(1990) 『和泉式部』 吉川弘文館, pp.1~41. 이하 和泉式부에 관한 전기는 본 책을 참고.

이름을 각각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식은 슬하에 딸 고시키부(小式部) 하나를 두었을 뿐 아들은 없는데 道命가 아들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和泉式부와 道命스님이 불륜관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히 허구이다. 이에 관해서는 3.2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넷째, 출가해서 性空스님의 불제자가 되었다는 기록부분도 그녀가 출가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출가를 원하는 와카가 남아 있는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헌을 참고로 하여 和泉式部 전기를 검토해보면 모노가타리는 거의가 사실과 어긋나며 약간 단순하고 색다른 내용으로 각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和泉式부와 道命의 실상과 허구화

3.1. 和泉式부는 유녀?

和泉式부가 생존했던 당대의 문헌을 참고로 하면 お伽草子の「和泉式部」내용은 거의가 사실과 어긋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시점에서 각색되어 향유되었을까.

먼저 和泉式부가 왜 유녀로 등장했을까 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和泉式부는 첫 남편 橘道貞와 결혼한 상태에서 為尊, 敦道 두 명의 황자와 스캔들을 일으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혼 후에는 말년에 藤原保昌와 재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인지 和泉式부는 자유분방한 연애생활을 한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그녀는 생전에 약 1500여 수의 와카를 남겼는데, 이 와카의 가풍(歌風)도 정열적이며 다정다감하여 이러한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和泉式부의 가집(이하, 와카 번호는 岩波文庫本『和泉式部集·和泉式部続集』에 의함)에는 근거 없는 스캔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는 노래가 많다.

835 天児につくとも尽きじ憂き事は科との風ぞ吹きはらはむ

내 액운을 인형이 대신 해주면 좋으려만 시나토의 폭풍이 아니면 소문을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

839 重ねつつ人の着すれば濡衣をいとほしとだに思ひおこせよ

이중으로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는구려. 이런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줘요

위 835의 노래는 ‘자기주변에 일어나는 구설수나 악재를 대리역할을 하는 인형을 만들어 빙의시켜 버리고 싶지만 그것은 소용없다. 시나토 해변의 거센 폭풍우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읊고 있다. 뜬소문으로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839의 노래는 작자가 누명을 쓰고 결연히 벗어나야지 하고 결심하는 시점에서 또 더한 구설수에 시달리자 읊은 노래로 ‘누명을 이중으로 뒤집어쓰게 되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줘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문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절연당한 내용(252번), 다른 사람들의 누명을 쓰고 분개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탄식하는 내용(921번, 1118번, 1369번)의 와카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자유분방함과 이에 대한 비난은 아쓰미치 황태자와의 사랑이야기를 기록한 『和泉式部日記』에도 여러 군데 남아 있다. 그 일부를 예로 보자.⁷⁾

好きごとする人々はあまたあれど、ただいまはともかくもおもはぬを。世の人はさまざまにいふめれど(恋歌를 보내며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은 많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七日、好きごとどもする人のもとより織女彦星といふことどもあまたあれど、目も立たず。(7일 연가를 읊어 관심을 보이는 남자로부터 직녀와 견우와 만나는 날인데 하는 얘기들은 많지만 전혀 관심도 없다.)……

위 예문을 통해 보다시피 작자가 살아생전 가장 사랑하게 된 아쓰미치 황태자와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연가를 읊어 보내며 관심을 보이는 남자는 주변에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일기의 본문에는 아쓰미치 황자를 사랑하고 있어 전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일까 이후 중세설화에는 和泉式部の 이미지를 허구화하여 더

7) 清水文雄校注(1992) 『和泉式部日記』 岩波文庫、위의 인용문 p.95. 아래는 p.107.에서 인용.

욱 낭만적이고 분방하게 묘사한 설화들이 등장한다. 다음 설화는 1252년 성립한 『十訓抄』에 수록되어 있는, 그녀의 족적과 전혀 관계없는 픽션물이다.⁸⁾

和泉式部 남몰래 이나리에 참배하게 되었다. 다나카의 묘진이 모셔진 신사 서쪽 부근에서 초겨울비가 내려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벼를 베던 아이가 도롱이를 구해 들고 왔다. 귀향할 무렵 날이 개었기 때문에 그 비옷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和泉式部가 모두가 있던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키가 큰 아이가 편지를 가지고 서 있었다. 저 아이는 뭐하는 이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 편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며 편지를 내민다. 보니,
초겨울비가 내리는 이나리산의 단풍은 녹엽일 때부터 당신을 사모했지요
라고 읊은 것이었다. 시키부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 아이에게 안으로 불러 들였다고 한다.

위 인용문에서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표현은 ‘남녀의 정을 나누었다’는 의미이다. 즉, 和泉式部를 사모한 이 아이는 와카로 和泉式部를 사모해 왔던 마음을 잘 읊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랑을 쟁취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1158년 성립한 가론서 『袋草紙』⁹⁾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농사짓는 아이 대신 비천한 소치는 목동이 사랑의 와카를 和泉式部에게 노래를 읊어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렇게 각색된 내용의 설화는 『袋草紙』 성립 이전에 이미 항간에 퍼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론서에 소개된 본문은 와카의 성립사정을 간단히 설명해줄 뿐 스토리성은 희박하다. 『十訓抄』에 이르러 비로소 신사와 결부된 다나카묘진이 등장하고 호색적인 이야기가 가미되어 일반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지닌 완결된 이야기로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어 온 『古本説話集』(1130년)의 ‘기후네(貴船) 설화’에 관해 살펴보자.¹⁰⁾

8) 黑板勝美(1942) 『十訓抄』 吉川弘文館, pp.162-163.

和泉式部、忍びて稻荷へ詣でけり。田中の明神の西のほどにて、時雨のしけるに、いかがすべきと思ふ間に、田刈りける童の、あをという物をこひきて、参りにけり。還向のほどはれにければ、次のあををとらせけり。さて次の日式部、皆の方を見出しいたるに、大きやかなる童の、文を持たたずみければ、あれは何するものぞといへば、此文を参らせ候はんといひて、さしおきたるを見れば、時雨するいなりの山のもみぢばをあをかしより思ひそめてきと書きたりけり。式部あはれとおもひて、この童におくの方へといひて、よびいれにけるとぞ。

9) 1158년 성립. 가론서.

야스마사(保昌)에게 잊혀져 수심에 잠겨 있을 무렵, 미타라시강(御手洗し河)에 반딧불이 고 있는 것을 보고,
 수심에 잠겨 있으니, 연못에 날고 있는 반딧불조차도, 마치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혼 같구려
 깊은 산 속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자신의 혼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도록 수심에는 잠기지 마오
 이 노래는 바로 인간이 아닌 기후네 묘진(明神)이 남자목소리였다고 한다.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和泉式部가 야스마사(保昌)에게 버림을 받아 수심에 잠겨 있을 무렵, 미타라시강(御手洗し河)에 반딧불이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수심에 잠겨 있으니, 연못에 날고 있는 반딧불조차도, 마치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혼이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라고 읊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자신의 혼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버리는 듯한 그런 수심에는 잠기지 않도록 하시오’라는 답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읊어보낸 상대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기후네 묘진(明神)이었다는 것이다. 和泉式部の 노래가 너무나 간절하여 신마저 감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이 공덕설화는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世継物語』(카마쿠라 초기쯤 성립으로 추정) 『十訓抄』(1252), 『古今著聞集』(1254), 『沙石集』(1283), 『神道集』(1352~1360), 『三国伝記』(1427), 『東齋隨筆』(1472) 등 많은 설화집에 수록되어 있다.

지면의 제한도 있어 和泉式部 관련 설화 전부를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和泉式部 설화는 연가 즉 사랑의 와카를 축으로 유포되고 창작되어진 것이 많다.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인 여성으로 와카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에 회자될 만한, 설화화되기 쉬운 속성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와카설화는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노래를 읊는다는 사실만으로 전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다. 작자가 자신의 감동을 상황에 맞게 5·7·5·7·7이라는 운율에 맞춰 와카를 읊는다. 이렇게 읊어진 와카는 주고받는 일상의 언어 공간에 긴장을 부여하고 정신의 응집력을 환기시켜 다시 누군가를 감동시킨다.

11) 山内洋一郎編(1965) 『古本説話集』 風間書房, pp.37-38.

保昌に忘られて、侍りけるころ、貴船に参りて、御手洗し河に蛍の飛びけるを見て、
 ものおもへば沢の蛍もわが身よりあくがれいずるたまかとぞみる
 奥山にたぎりておつるたきつせにたまちるばかりものなおもひそ
 この歌貴船の明神の御返し也。おとこ声にて、耳にきこえけるとかや

이런 노래가 명가일 경우 많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후대에까지 계속 전승되고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다.

설화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명한 노래의 탄생에 주목하고 노래가 읊어진 상황과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특성까지 파악해 이를 보급시키기에 힘썼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お伽草子の 작자나 독자는 和泉式部가 활동했던 시기와는 달리 말단 무사나 승려 평민 예능인 등이다. 따라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이야기가 요구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낳은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와 모자상간을 일으키는 여성이라면 굳이 和泉式部가 귀족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구전되어 온 설화 속의 和泉式部는 남성편력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인 와카를 잘 읊는 자유분방한 여성이다. 이야기의 창작자는 이러한 그녀의 이미지를 포착해 유녀로 소설화했다고 보인다.

3.2. 道命와 和泉式部

お伽草子の 「和泉式部」에서는 道命(974~1020)와 和泉式部가 연인관계, 모자관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道命의 아버지는 후지와라노 미치쓰나(藤原道綱)로, 미치쓰나는 『蜻蛉日記』 작자와 당대의 넘버원 권력가 후지와라노 가네이에(藤原兼家)의 아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명문가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天王寺 총무직을 담당하고 후에는 고승의 직위인 阿闍梨의 직에 오른 훌륭한 스님이었다.

그렇다면 お伽草子 속의 和泉式部는 道命와 어떻게 커플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道命은 974~1020년에 걸쳐 생존한 인물로 스님이며 와카를 잘 하는 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가 와카의 명수였다는 사실은 『大鏡』의 ‘와카를 매우 잘 읊었다(和歌のきはめたる上手)’란 기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실제로 그의 노래는 『後拾遺集』 이후 勅撰集에 57수나 수록되어 있어 가인으로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헤이안 시대 말기 1180년 전후 편찬된 가요집 『梁塵秘抄』 卷一에¹¹⁾

11) 白田甚五郎·新聞進一 校注·訳(1977) 『神楽歌 催馬楽 梁塵秘抄 閑吟集』小学館、p.200.
和歌の優れてめでたきは、人丸 赤人 をのの小町 躬恒 貫之 壬生の忠み 遍昭 導命 和泉式部

와카가 뛰어나 축복받은 인물은 人丸 赤人 をのの小町 躬恒 貫之 壬生の忠み
遍昭 道命 和泉式部

로 마지막 부분에 나란히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설화에서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和泉式部도 道命도 헤이안 중기 누구에게도 추종을 불허하지 않은 와카의 명수이기 때문에 나란히 등장시키는데 특별히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까닭인지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 역시 와카에 의해 성취된다. お伽草子에서도 설법하기 위해 궁궐로 초대받은 道命는 궁녀 和泉式部の 모습을 보고 한 눈에 반해 굴 장수로 변장해 다시 방문한다. 그리고 하녀가 스무 췌에 해당하는 굴을 달라고 하자, 굴 스무 개를 세며 20수의 와카를 읊는다.¹²⁾

一つとや、ひとりまる寝の草枕袂しばらぬ暁もなし
 하나하면, 홀로 팔베개하며 잠드는 밤 소매 젖지 않는 새벽녘 없다

二つとや、二重屏風の内に寝て恋しき人をいつか見るべき
 둘 하면, 두 겹 병풍 안에 누워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볼까

三つとかや、見ても心の慰までなど憂き人の恋しかるらん
 셋 하면, 만나 봐도 위로가 되지 않네 야속한 임이건만 왜 이리 그리울까

四つとかや、夜深に君を思ふらん枕かたしく袖ぞ露けき
 넷 하면, 임 보내고 홀로 지내는 깊은 밤 소매에 이슬만이 가득하다

五つとや、今や今やと待つほどに身をかげろふになすぞ悲しき
 다섯 하면, 이제나 저제나 임 기다리던 몸 아지랑이 되니 슬프기만 하다

五つとや、今や今やと待つほどに身をかげろふになすぞ悲しき
 다섯 하면, 이제나 저제나 임 기다리던 몸 아지랑이 되니 슬프기만 하다

六つとかや、向ひの野辺にすむ鹿も妻故にこそなき明しけれ
 여섯 하면, 저 들판 사슴도 임 그리워 밤새 우는구나

七つとや、なき名のたつもつらからじ君故流すわが名なりけり
 일곱 하면, 염문이 돌아도 괴롭지 않으리 당신 때문에 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八つとかや、弥生の月の光をば思はぬ君が宿にとどめよ
 여덟 하면, 춘삼월 달빛이 무정한 당신 머무는 곳에 머무르기를 ... 후략...

12) 5)의 책, pp.386-389.

그 일부만 인용했는데 와카의 내용은 구구절절이 ‘잠깐 본 그대를 못 잊어 밤새 울었노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주소’ 라는 내용이다. 도를 닦는 어엿한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러한 이미지는 『お伽草子』에서 바로 급조된 것이 아니다. 1188년에 편찬된 『宝物集』에도 和泉式部に 빠져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법화경(法華經)을 독송한 공덕에 의해 극락왕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道命은 불경 독송을 잘 하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¹³⁾ 당시 讀經道라는 용어가 학술어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독경의 流派가 존재했는데 독경에 박자를 붙여 아름답게 읊는 이를 독경의 명수로 평가했는데 일본역사상 최초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 道命였다는 것이다.

1221년에 성립된 불교와 세속 설화를 모은 설화집 『宇治拾遺物語』¹⁴⁾ 卷一 제1화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소개되고 있다.¹⁵⁾

옛날에 후도노¹⁶⁾의 아들 道命아자리라고 하는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이 전부터 和泉式部에게 드나들고 있었다. 불경을 아주 잘 독송했다. 그가 하루는 和泉式部가 있는 곳에 가서 잠들었다 깨어 마음을 다해 불경 8권을 다 읽고 있을 무렵 인기척이 나서 ‘거기 누구죠’ 하고 물으니 ‘난 고쥬의 서동원근처에 있는 도소신¹⁷⁾이오’ 라고 답했다. ‘여긴 웬일이오?’ 라고 道命가 묻자 ‘오늘 밤 독경을 들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소’ 라고 했다. 그러자

13) 小島孝之(2014) 「説話を読み解く—宇治拾遺物語の戦略—」 『成城国文学論集(36)』 成城大学, p.9.

14) 1213~1221년 성립 불교 세속 설화, 보은담으로 구성.

15) 小林智昭 校注・訳(1977) 『宇治拾遺物語』 小学館, pp.53-54.

『宇治拾遺物語』는 교훈과 계몽의 요소 적으며 신앙심을 권장하지도 않으며 자유로운 시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많음. 중세 설화 속에서 특이한 작품집이다. 이하 원문.

今は昔道命阿闍梨とて傳殿の子に色にふけりたる僧ありけり。和泉式部に通ひけり。經をめでたく読みけり。それが和泉式部許行きて、それが和泉式部許行きて臥したりけるに、目覺めて經を心を澄して読みけるほどに、八巻読み果てて暁に徹睡まんとするほどに、人の氣はひのしければ ‘あれは誰ぞ’ と問ひければ ‘己は五条西洞院の辺に候ふ翁に候ふ’ と答へければ ‘こは何事ぞ’ と道命云ひければ、 ‘この御經を今宵うけたまはりぬる事の生々世々忘れ難く候ふ’ と云ひければ、道命 ‘法華經を読み奉る事は常の事なり。何ど今宵しも云はるるぞ’ と云ひければ、五条の齊曰く ‘清くて読みまらせ給ふ時は梵天、帝釈を始め奉りて聴聞せさせ給へば翁などは近づき参りて承るに及び候はず。今宵は御行水も候はで読み奉らせ給へば梵天帝釈も御聴聞候はぬ間にて翁参り寄りて承りて候ひぬる事の忘れ難く候ふなり’ と述給ひけり。さればはかなくさい読み奉るとも清くて読み奉るべき事なり。 ‘念仏読經四威儀を破ることなかれ’ 恵心の御房も戒め給ふにこそ。

16) 道命의 아버지 후지와라노 미치쓰나가 황태자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붙여진 관직명.

17) 마을의 외곽마을 도로 경계에 세워져 역병이 난 악신을 막아주고 여행자를 막아주는 신.

道命가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은 늘 하는 일ियो. 왜 오늘밤만을 잊기 어렵다 하시오’ 라고 묻자, 고조노 사이 답하기를 ‘정결하게 독경하실 때는 범천¹⁸⁾ 제석¹⁹⁾을 비롯하여 훌륭한 분들이 들으시니 저 같은 노인은 가까이 하기 가 어렵지요. 오늘밤은 대충이라도 씻지 않으시고 독송을 하셔서 범천 제석도 오시지 않는 틈을 타 이 노인이 와서 듣게 되었소’ 라고 하셨다. 때문에 가령 잠시라도 독경을 하게 될 때는 몸을 정결히 하고 읽어야 한다. ‘염불 독경에는 4종의 위엄²⁰⁾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고 惠心²¹⁾스님도 경계하셨던 것이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道命는 가장 먼저 호색기질이 강한 사람(色にふけりたる僧)으로 소개된다. 유명한 스님이지만 호색이다. 정을 통하고 있는 상대여성은 和泉式部. 어엿한 스님이 여색을 밝히니 그것만으로도 파계승이지만 게다가 부정한 몸으로 불경 8권을 다 읽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몸을 정결히 하지 않고 불경을 읽는 것 또한 파계, 즉 계율을 어기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소신은 불경을 잘 들었다고 답례한다. 이를 보면 작자의 의도가 매우 애매하다. 여색을 밝히고 부정한 몸으로 독경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칭찬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²²⁾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4종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宇治拾遺物語』란 설화집 자체가 교훈과 계몽의 요소가 적고 신앙심을 권장하지도 않으며 자유로운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평가도 있으니 이에 입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이 설화에도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대 독자들은 和泉式부와 道命가 기품이 있는 인물이기보다 그야말로 세속적이고 호색적인 인물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두 사람 모두 호색기질이 다분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1304년의 『雜談集』, 1472년의 『東齋隨筆』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설화는 꽤나 생명력이 긴 설화로 여기저기 유포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18) 천자 우주의 창조신

19) 석가모니

20) 일상생활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 전반에 걸쳐 절제하고 위엄을 지키는 일.

21) 헤이안 시대의 源信 스님(942~1017) 村上天皇에게 法華八講을 강론, 『往生要集』 편찬.

22) 16)의 책, pp.16-17.

두 사람의 연애담은 『古今著聞集』 卷八, 米沢本 『沙石集』 에도 실려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道命가 和泉式부와 정을 통하다 야스마사에게 발견될 것 같아 당황하여 갑옷을 넣어두는 뒤주에 몸을 숨겼다. 야스마사는 곧장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그 뒤주를 기온신사로 옮겨가게 했다. 기온에는 공교롭게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 아무도 그것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뒤주 안에서 ‘이봐, 소사, 좀 열어 봐’ 하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집행관인 道命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²³⁾

실제 헤이안의 문헌을 살펴보면 和泉式부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아쓰미치 황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설화 속에 그의 존재는 그림자도 없다. 道命가 和泉式부 관련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와카를 잘 읊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독경이나 독송을 잘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취급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절과 신사 등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세 이후 편찬된 설화집을 보면 불교관련 설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お伽草子에서도 승려들이 관리하고 일반인이 향유하는 불교관련 설화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 설화 역시 발심 둔세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자가 승려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3.3. 모자상간과 출가

이야기의 대단원 부분에서 서로에 이끌린 和泉式부와 道命가 比翼鳥의 정을 나눈다. 밤이 깊어 얘기를 나누던 중 남자가 한시도 떼어놓지 않은 호신용 칼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버릴 때 배냇저고리 품에 넣어준 칼과 똑같다는 알고 기겁을 한다. 이후 이어지는 결말부분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이 무슨 운명인가 부모 자식인 줄도 모르고 정을 통하다니. 이 모든 것도 미망된 속세에 매여 있으니 일어난 일. 이를 불도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생각한 和泉式부는 그길로 한밤중에 도성을 떠나 오노에포구를 지나 시카마가타를 거쳐 안개와 구름을 헤치며 걷고 또 걸어 하리마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쇼샤산에 입산하여 性空스님의 제자가 되었다.²⁴⁾

23) 渡邊綱也(1943) 『沙石集』 日本書房, p.159.

24) 5)의 책, p.393.

こは何ごとぞ、親子を知らで逢ふことも、かかるうき世に住む故なり。これを菩提の種として、都をいまだ夜深に出でて、尾上の鐘の浦伝ひ、響きは何と飾磨洞、霞を凌ぎ、雲を分け、播磨国書写へ上り、性空上人の御弟子 となり。

비익조의 정을 나눈 상대가 아들임을 깨달은 和泉式部는 그길로 입산하여 출가를 결심한다. 왜 이야기 속에 母子相姦이 삽입되었을까. 위의 모자상간의 모티브는 오이디푸스 이야기²⁵⁾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버림받은 아이, 어머니와의 결혼, 모자상간임을 깨달은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찢러 맹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和泉式部가 열세 살 때 대궐에 늙름한 무사가 있어 이 남자와 정을 쌓아 아들을 낳았는데 수치심을 느껴 갓난아기를 버렸다고 시작된다. 그 아이가 학문에 남다른 재능이 뛰어나 불법을 계승할 유명한 스님이 되고 풍류도 깊어 시가로도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 스님이 和泉式部를 보고 반하게 된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근친상간은 그 강렬한 감정 자체가 무의식적 욕망의 증거이고, 특히 남성이 어머니와의 성교를 생각할 때 극도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스티븐 핑커는 ‘그런 논리라면, 사람들은 개똥을 먹거나 바늘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²⁶⁾고 설명하고 있다. 和泉式部 역시 자신과 정을 나눈 남자가 자식이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러한 느낌의 자기혐오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현재도 그렇지만 모자상간은 근친상간 중에서도 가장 반인륜적인 큰 죄악이었던 것 같다. 일본에서도 일찍이 고대부터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범하는 모자상간은 금지되고 있었음을 대불제(大祓除)의 祝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친밀감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를 경계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설이 있다.²⁷⁾ 이와 같은 모자상간에 관한 금지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제법 일어났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お伽草子의 작자는 옛 신화에 등장할 법한 근친상간의 사건을 플롯의 주요 골격으로 삼았을까. 이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 나약함 한계 같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인간은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하면 비열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탐욕과 욕정에 쉽게 휘둘리기도 한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요소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성과 절제로 다스리려

25)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신탁받고 아이를 버림. 양치기에게 발견되어 길러진 다음 코린트의 왕에게 입양되어 왕자가 됨. 테베로 가는 길에 오이디푸스는 생부인 라이오스를 만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를 죽인다. 그런 다음 그는 수수께끼를 풀고 스펅크스를 죽인 후 그에 대한 상으로 테베의 왕위와 홀로된 왕비를 얻는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는 자살하고 자신은 눈을 뽑게 된다.

26) 스티븐 핑커 저 김한영 옮김(200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녘사이언스, p.702.

27) 眉藤正英(2001) 『日本文化の歴史』 岩波新書, p.26. 참조.

고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야기 속의 和泉式部도 장안 모든 남성들이 흠모하였으나 수많은 원한과 집착에 죄를 짓게 만든 업보를 피하지 못한 小野小町の 예를 들어가며 어차피 덧없이 스러질 몸이기에 道命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욕망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삶의 씨앗이다. 이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살아 있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노가타리에는 그 욕망이 발현되는 과정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욕망대로만 살 수 없다. 그럴 때 이성이 역할을 하는데 和泉式部 이야기에서와 같이 맨 마지막의 발심둔세와 같은 교조적 역할이다. 이미 욕망에 의해 일어나고 선택되고 결정된 삶을 설명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문을 끝맺는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²⁸⁾

이후 예순한 살로 열반할 때 쇼샤산(書写山)의 수호신을 모시는 배례전 기둥에 노래 한 수를 새겼다.

어둡고 어두운 길로 가는 중생을 위해 산머리 달님이여 미망의 길에 접어 들지 않게 멀리서 훤히 비춰주소서

和泉式部가 속세를 떠나 발심 둔세한 내력이 이와 같다. 모름지기 마음가짐을 경솔히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의 ‘くらきよ~’는 和泉式部가 1002년 25세에 현재 히메지시의 하리마(播磨) 쇼샤산에 있는 性空스님에게 읊어 보낸 와카로 당시에 그녀를 대표하는 노래로 많이 회자되었던 노래이다. 범화경의 卷第三의 化城喩品の 일부를 패러디한 것으로 와카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번뇌 속에서 고뇌에 찬 현세를 방황하고 있네요. 덕이 높은 스님이시여, 제발 저에게 밝은 빛을 비춰 이 암흑의 세계에서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세요’ 라는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녀는 당시 타고난 다정다감함과 구설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자신을 현세의 번뇌 속에서 구원할 대상은 性空스님이라 판단하고 이 스님을 달님에 비유하여 제발 저를 이 아수라의 지경에서 구원해주세요 라

28) 5)의 책, p.393.

六十一の年、得心し給ひける時、書写の鎮守の柱に、御歌を書き付け給ひ、かくばかり、暗きより 暗き闇路に 生れきて さやかに照らせ 山の端の月

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노래가 그녀 사후 편찬된 중세의 『古本説話集』에는 생전에 지은 죄업을 속죄하기 위한 노래로 소개되고 있다.²⁹⁾ 와카 이하의, 해석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둡고 어두운 길로 가는 중생을 위해 산머리 달님이여 미망의 길에 접어들지 않게 밝은 길로 안내해 주소서
이렇게 보내자 답으로 승복을 보내왔다. 병이 다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승복을 입었다. 노래로 후세에서 구원을 받은 것, 실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 경우는 욕망에 갇혀 사는 자가 ‘제 어리석음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으나 제발 이제부터라도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노래이다.

결과적으로 お伽草子の 「和泉式部」에서는 ‘和泉式部 속세를 떠나 발심 둔세한 내력이 이와 같다. 모름지기 마음가짐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와 같은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업인 모자상간을 이야기의 플롯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お伽草子が 성립된 시기가 무로마치와 같은 전란이 끊이지 않고 하극상이 난무하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말단 귀족이나 무사와 평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예전의 모노가타리와 달리 주인공 和泉式部를 유녀로 등장시키고 이 주인공이 수치심에 아이를 버리게 하고 덕이 높은 스님으로 장성시킨 후 와카를 매개체로 낭만적인 사랑을 한 다음 모자상간을 저지르게 한 것은 권선징악이나 교훈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お伽草子』의 和泉式部는 중세의 설화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중세설화의 틀을 뛰어넘은 파격적이고 새로운 이야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9) 山内洋一郎編(1965) 『古本説話集』 風間書房, pp.38-39.
くらきよりくらきみちにぞいりぬべきはるかに照らせ山の端の月
とよみてたてまつりければ、お返事に袈裟をぞつかはしたりける。病つきて失せむとしける日、その袈裟をぞ着たりける。歌の徳に、後の世も助かりけむ、いとめでたき事。

4. 나오며

이상을 정리하면 『お伽草子』의 和泉式部는 모자상간을 범해 출가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야기 속 그녀의 신분은 유녀(遊女)이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상대는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쓰미치 황태자가 아니라 道命이다. 두 사람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가인이며, 和泉式部가 자유분방한 여인이었다는 점과 道命의 독경숨씨가 훌륭했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설정은 お伽草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세설화에 이미 허구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和泉式部 이야기는 완전한 창작이 아닌 헤이안·중세 설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해도 お伽草子の 이야기는 이전의 설화와는 상당히 다르다. 승려는 거침없이 세속적으로 연가 20수를 읊어 유녀에게 구애를 하고 둘의 사랑은 정열적이고 로맨틱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중에 신분을 확인하니 두 사람은 모자관계였다. 이 母子相姦의 설정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잡하고 단순한 유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작자의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이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욕망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모자상간의 욕망을 끌어들이 주인공을 출가시키고 있다. 이는 독자의 욕망을 한껏 충족시킨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이성의 세계로 안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주된 독자층인 말단 귀족과 승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취향을 충분히 계산한 숨씨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스티븐 핑커 저·김한영 옮김(200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녘사이언스, p.702.
 白田甚五郎·新聞進一 校注·訳(1977) 『神楽歌 催馬楽 梁塵秘抄 閑吟集』小学館、p.200.
 大島建彦 校注·訳(1976) 『お伽草子集』小学館、pp.386-393.
 黑板勝美(1942) 『十訓抄』 吉川弘文館、pp. 162-163.
 小島孝之(2014) 「説話を読み解く一字拾遺物語の戦略」 『成城国文学論集(36)』成城大学、p.9、pp.16-17.
 小林智昭(1977)校注·訳 『宇治拾遺物語』小学館、pp.53-54.
 清水文雄 校注(1992) 『和泉式部集·和泉式部続集』岩波文庫、pp.141-234.

- 清水文雄 校注(1992) 『和泉式部日記』 岩波文庫、p.95、107.
眉藤正英(2001) 『日本文化の歴史』 岩波新書、p.26.
山内洋一郎編(1965) 『古本説話集』 風間書房、pp.38-39.
山中裕(1990) 『和泉式部』 吉川弘文館、pp.1-41.
渡邊綱也(1943) 『沙石集』 日本書房、pp.158-159.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お伽草子集』 「和泉式部」に関する一考察

南二淑

お伽草子に登場する和泉式部物語は式部が遊女で、導命は彼女の息子として幼い頃に捨てられ、後に立派な僧侶に成長して母子相姦を犯す。式部は自分が犯した導命が息子であることを知って出家する。これは和泉式部の素顔とは違う姿で、彼女と愛の対象も生前に愛した敦道ではなく、名僧導命として虚構化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虚構化はすでに中世説話でも行われている。二人とも当代を代表する有名な歌人で、彼女は自由奔放な女性で、導命は読経の腕前が優れているという点から起因したのだろう。

ところで『お伽草子』の主人公たちはなぜ母子相姦を犯すのか。この作品が書かれた室町時代は、戦乱で世の中のすべてのモラルと価値追求が正常ではなかった可能性もあり、これを反映したとも言えよう。しかも、物語の結末からも分かるように、和泉式部を出家させる必要があったからであろう。

このようなプロットは粗雑で単純な形だが、作者の緻密な意図が込められていると思われる。人間は欲望の存在で、これを追求する本能を持つ。欲望の中でも最も根源的な母子相姦の欲望を話の中に引き入れて主人公を出家させ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読者に人間の持つ欲望を思い切り味合わせ、楽しませた後、最後の戒めを説くのもっとも効果的であるからだろう。当代の読者であった末端貴族と一般庶民の話の趣向を十分に計算した技量のある構成と言えよう。

Izumishikibu of "Otogi Zoshisyu"

Nam, Yi-Sug

In "Otogi Zoshi", Izumishikibu is described as a prostitute. Domyo was abandoned by her at an early age. He grew up and became a fine monk, but he committed adultery with his mother. Shikibu noticed that they had committed incest, and she became a nun. In the story, the image of Shikibu was different from her general character. Her romance was fictionalized. This kind of fiction was already used in medieval tales. Both of them were famous poets. Shikibu was a free-spirited woman, and Domyo was a monk who was famous for reading sutras clearly. This is why they were described as a romantic couple in stories.

why did the main characters commit mother-child adultery? It can be said that the Muromachi period, during which this work was written, reflected the possibility that all moral and value pursuit in the world was not normal due to the war. Such plots seem crude and simple, but they seem to contain the author's detailed intentions. Men are the existence of desire, and it is a man who pursues it. This plot draws the most fundamental desire of maternal and child adultery into the story and leads the main character to Buddhism. This is thought to be because Buddhism is most effective in preaching the last commandment after letting readers savor and enjoy human desires. It can be said that the was good at calculating the taste of stories between the aristocrats and ordinary people who were readers of the day.